

코로나 확산에 전국 중증병상 부족...광주·전남 62% 가동

광주·전남, 32개 중 20개 사용...경증·무증상 병상 절반 남아 전국, 중증 전담 병상 70% 소진...대전·세종은 남은병상 없어

코로나 19의 4차 대유행으로 연일 전국적으로 1000~2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일부 지역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의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다.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가 치료받는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의 절반가량이 비워져 있으나, 위중한 환자가 입원하는 중증환자 전담 병상의 경우 가동률이 60%를 넘어섰다.

23일 광주시, 전남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등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가 입원하는 병상은 모두 4개로 분류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증중환자 치료병상, 감염병 전담 병원, 생활치료센터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산소 요법, 인공호흡기, ECMO(에크모·체외막산소 공급) 등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이다.

지난 22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병상 총 821개 가운데 잔여 병상은 246개(30.0%)로 파악됐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병상 10개 중 7개는 사용 중이고 나머지 3개는 잔여 병상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이미 병상 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은 확보한 중증 환자 병상 14개를 모두 사용 중이며, 세종도 4개 병상이 다 차 있어 이용 가능한 병상이 없다. 충남의 경우 18개의 병상 중 1개의 병상만 더 이용할 수 있다.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은 438개로, 이 가운데 149개(34.0%)가 남아 있다. 그러나 중증환자 병상 역시 일부 지역의 경우 한계에 달했다. 경북은 확보한 병상이 모두 차 있어 입원 가능한 병상이 없으며 인천은 잔여 병상이 2개로 나타났다.

중수본은 당장은 중환자 병상 확보와 치료에 차질이 빚어질 상황은 아니지만, 현 추세대로 연일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강도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의료체계의 대응 여력은 유지되는 중으로 병상 대기 등의 문제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환자 증가에 따라 여력이 감소하고 있다"며 "유행 규모가 여기서 더 커지게 되면 적절한 의료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와 전남은 병상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시도는 중증중환자 이상 병상은 대학병원이 밀집한 광주 위주로, 경증 이하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을 다수 보유한 전남 위주로 병상을 공유하고 있다.

22일 기준,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상 32개 가운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20개(62.5%)로 12개 병상이 남아있다. 잔여 병상은 전남대병원 6개, 조선대병원 2개, 화산전남대병원 4개다. 중증중환자 치료병상의 경우 빛고을전남대병원에 81개 병상이 설치돼 있는데, 이 중 34개(42%) 병상이 사용 중이며, 잔여 병상은 47개로 파악됐다.

경증 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전담병상 330개 가운데 사용 병상은 129개(39.1%)로 201개의 병상이 남아 있다. 무증상 확진자가 머무는 생활치료센터 2곳에 설치된 병상 292개 가운데 사용 병상은 150개(51.4%), 잔여 병상은 142개로 여유가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3일 광주 북구 효죽주차장에 마련된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19검사를 받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5~7월 신규 확진자 93.4%는 백신 미접종자 당국, '돌파감염자' 전파 확률 미접종자보다 최대 70% 낮아

올해 5~7월 코로나19에 걸린 10명 중 9명 이상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7월 24일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6만 5347명 가운데 백신을 한 차례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93.4%인 6만 1055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는 1차 접종자 5.2%(3399명), 접종 완료자 1.4%(893명)였다.

또 같은 기간 발생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는 총 1415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2.2%를 차지했다.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가운데는 미접종자가 1292명으로 91.3%에 달했고, 나머지는 1차 접종자 8.1%(114명), 접종완료자 0.6%(9명)로 파악됐다.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이 아닌 60세 미만 연령층에서는 이 기간 총 691명의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가 나왔다. 이 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681명으로 98.6%에 달했고 나머지는 1차 접종자 1.2%(8명), 접종완료자 0.3%(2명)였다.

상반기 우선접종 대상인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총 724명이었다. 이 가운데 미접종자가 611명으로 84.4%를 차지했고 이어 1차 접종자 14.6%(106명), 접종완료자 1.0%(7명)였다. 사망자 가운데 이달 21일까지 파악된 20대 사망자의 경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까지 사망한 20대 확진자 8명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고, 백신접종 대상

자임에도 접종을 받지 못한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방대본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증가하는 이유로 확진자 수의 절대적인 증가로 꼽았다.

배경택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예방접종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5월 이후의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확진자 증가로 사망자와 중증환자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예방접종 진행과 방역조치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신 접종 완료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확률도 미접종자보다 50~70%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팀장은 "영국 자료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한 뒤 확진된 '돌파감염자'가 다른 사람에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확률은 미접종자보다 최대 50% 낮고, 또 네덜란드 자료상으로는 최대 70%까지 추가 전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안센 백신 1만2천명분 본격 접종 25일부터 시·군별...미등록 외국인·무의도서 주민 등 대상

전남도가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안센 백신 1만 2000명분에 대한 접종을 25일 시·군별로 본격 시작한다. 다만 북포·여수의 경우 국제항해중사자 안센 백신 접종이 현재 진행 중이다.

안센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은 미등록 외국인, 발달 장애인 보호자, 해외출국자, 건설노동자, 유학생, 철도·항만 근로자, 지리 여건상 2회 접종이 어려운 무의도서 주민 등이다.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하면 된다. 조기 접종을 원하면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면 된다. 안센 백신은 1회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2회까지 접종이 어렵거나 지역 방역상황에 따라 긴급한 접종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

전남도는 이같은 안센 백신의 이점을 살려 예방접종의 접근성을 높이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3분기 내로 도민의 80%가 접종을 완료하고 집단면역을 70% 이상 형성하도록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빠짐없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선 23일 현재까지 1차접종 기준 1분기 6만3007명, 2분기 67만3386명, 3분기 34만4347명으로, 총 108만740명이 접종, 58.3%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유현석 기자 chadol@

/연합뉴스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태풍 '오마이스' 비상...피해 최소화 최선

광주시·전남도, 인명피해 예방·위험지역 특별관리 등 철저 대비

태풍 '오마이스(OMAIS)' 북상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태세 점검과 함께 인명피해 제로화와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광주시 12개 부서장과 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이번 태풍에 대비해 예비특보 발표 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예방조치 강화 ▲위험지역 및 시설물 특별관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유사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이 강풍과 호우를 동반할 것으로 예측하고 ▲저지대 등 상습침수지역의 배수 펌프 가동 여부 확인 ▲급경사지·축대 등 시설물 사전 안전 점검 ▲지하차도 등 차량통제 등 세부 대처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 등에 미리 통보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도청 정례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실·국별로 태풍 대처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기고, 도민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지난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도와 시·군 405명이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도는 각 시·군에 ▲산사태 위험지구, 축대, 급경사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주민 사전 대피 ▲지붕, 옥외간판 등 강풍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 결속·결박 ▲과수원 지주 고정, 시설하우스 결박, 배수로 정비를 비롯한 농작물시설 관리 등을 이행하도록 전달했다. 이와 함께 침수위험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등 취약지역은 출입을 사전 통제하고, 과거 재해 복구사업장과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예찰과 긴급조치를 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투자, 하실분

- ▶ 덕남동, 빛고을 전대병원 인근
- ▶ 임야 661㎡(구 200평) 자본매매
- ▶ 장/단기 개발호재 다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매매 - 6000만원(평당 30만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상가매매 (상무지구)	장성 토지(매매 분양)
1) 40평(전용) 2억3천 (용1억) 보1천 월100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담(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2) 60평(전용) 4억3천 (용2억6천)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5억8천 (용 3억6천)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출,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